



김상현 복귀...CK포 부활하나



KIA '4강 불세' 주중 롯데와 3연전 결과에 달려 오늘부터 하반기 돌입 이승왕 등 기록경쟁 치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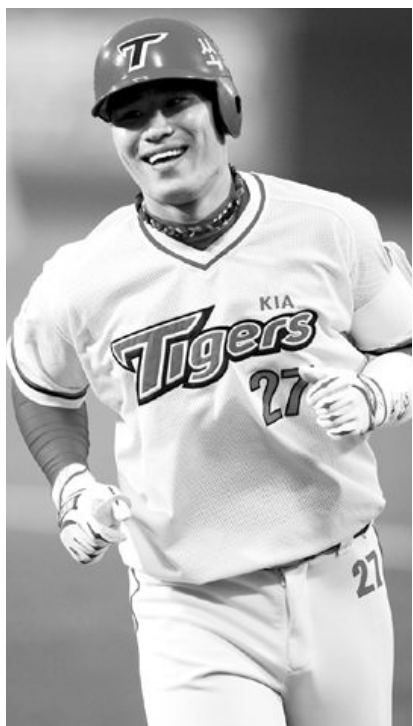
승고르기를 끝낸 프로야구의 순위싸움이 재점화된다. 달콤한 올스타 브레이크를 끝낸 프로야구가 27일부터 하반기 일정에 돌입한다. KIA 타이거즈는 27일 부산 원정에 나서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4강 테스트를 받는다. 잠실에서는 SK와 LG가 만나고, 넥센과 두산은 목동, 한화와 삼성은 대전에서 격돌한다.

후반기 SK의 1위 독주에 예상되는 가운데 2위와 4위 싸움이 치열하다. 1게임차로 전반기를 마감한 삼성, 두산의 2위 다툼속에 롯데, LG 그리고 KIA까지 4위 쟁탈전을 벌일 전망이다.

KIA는 전반기 계속된 부진으로 종이호랑이 신세로 전락했지만 아직 4강 꿈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5위 LG와 2.5게임차, 4위 롯데와 5게임차다.

그만큼 주중에 벌어지는 롯데와의 3연전은 4강 희망을 살릴 수 있는 기회이자 4강 꿈이 무산될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5게임차의 격차를 얼마만큼 좁이느냐에 따라 KIA의 하반기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

KIA는 전반기 마지막 등판에서 지난해 다승왕의 위력을 보여준 로페즈를 마운드에 내세웠다. 롯데에서는 사도스키가



선발로 나선다. 코치진 개편으로 분위기 전환에 나선 KIA는 또 다른 비밀병기도 준비했다. 무릎 부상에 이은 발목 부상으로 오랜기간 자리를 비웠던 김상현이 부산행 버스에 올랐다. 컨디션 여부에 따라 투입 시기가 조절

될 예정이지만 사지가 김상현의 복귀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뜨거운 순위 싸움이 예상되는 하반기 프로야구의 기록행진도 이어진다.

LG 류택현이 가장 먼저 최다 출장 기록에 도전한다. 류택현은 앞으로 3경기만 더 출장하면 조운천의 기록(813경기)을 넘어선다.

넥센의 베테랑 송지만은 26루타만 더 하면 장종훈·양준혁에 이어 통산 3번째 3000루타를 기록하게 된다.

SK 박재홍은 1000득점까지 22득점을 남겨두고 있다. 전반기 40개의 도루를 기록한 LG의 '슈퍼스타' 이대형은 4년 연속 50도루와 3년 연속 60도루를 향한 질주를 펼친다.

개인 타이틀 경쟁도 뜨겁다. 특히 롯데 타자들은 타격 전 부문에서 상위권을 지키고 있어 개인들의 집안싸움이 예상된다.

97타점을 올리고 있는 홍성흔은 데뷔 후 첫 타점왕에 도전한다. 2003년 이승엽이 기록한 144타점을 넘어설 지도 관심사다. 홈런왕 경쟁에서는 이대호(28개)·가르시아(24개)·홍성흔(22개)과 함께 한화의 차세대 거포 최진행(24개)의 대결이 예상된다.

다승왕 경쟁도 시즌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현재 한화 류현진이 13승으로 다승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KIA 양현종과 SK 김광현, 두산 히메네스가 12승으로 그 뒤를 쫓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0 투르 드 프랑스 결승점인 파리 개신문을 향해 선수들이 26일(한국시간) 막판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바둑 드림팀' 떴다 아시아게임 국가대표 결단식

광주 아시안게임 바둑 국가대표팀이 26일 상동구 흥익동 한국기원 2층대회장에서 국가대표팀 선수 및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단식을 가졌다.

바둑이 아시안게임 사상 첫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가운데 남자국가대표팀은 이창호 9단, 이세돌 9단 등 양이(兩李)를 필두로 조한승 9단, 최철한 9단 등이 뒤를 받치는 '드림팀'으로 금메달이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다.

여자대표팀은 조혜연 8단, 이민진 5단, 김윤영 초단, 이슬야 초단이 출격한다.

바둑은 대한바둑협회가 2009년 5월에 대한체육회 55번째 정가맹단체가 되면서 정식으로 체육계에 진입했다.

남자단체전과 여자단체전, 혼성복식전 등 3개의 금메달이 걸린 것은 아시안게임 바둑 종목은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광주 체스협회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한국남녀 금5 종합우승 몽골 월드컵 국제수도

한국 남녀대표팀이 2010 몽골 월드컵 국제수도대회에서 금메달 5개를 휩쓸면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은 25일 오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치러진 대회 마지막 날 경기에서 남자 81kg급 김재범과 90kg급 권영우(이상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여자 70kg급 황예슬(안산시청)과 78kg급 이정은(이상 안산시청)이 우승하면서 전날 금메달을 획득한 여자 57kg급 김간디(용인대)를 합쳐 총 5개의 금메달을 따냈다.

이로써 한국은 금메달 5개와 은메달 5개, 동메달 3개를 확보하며 종합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연합뉴스

임정훈 대회 5관왕 표인라인...한국 종합 2위

한국 인라인 남자 기대주 임정훈(17·전주 생명과학고)이 제14회 아시아롤러스케이팅선수권대회에서 5관왕에 올랐다.

임정훈은 25일 밤 대만 가오슝에서 막을 내린 대회 주니어 로드 3,000m 계주 결승에서 최광호(17), 이상철(16·이상 대구 경신고)과 한 조를 이뤄 출전한 7분34초595로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력에서 T300m와 500m, 1,000m 3관왕을 달성한 임정훈은 로데에서도 T200m와 계주에서 금메달을 추가했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 스피드 부문에서 금메달 14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17개를 따 대만에 이어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올 시즌이 마지막 무대" '타격 달인' 양준혁 은퇴 선언

'기록 제조기' 양준혁(41·삼성)이 올 시즌이 끝나고 18년 동안 이어왔던 선수 생활을 마감한다.

삼성은 26일 양준혁이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구단에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구단은 양준혁의 의사를 존중해 은퇴 후 진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양준혁은 해외 연수 등을 거쳐 지도자의 길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삼성은 이날 양준혁을 1군 엔트리에서 말소했고 선동열 삼성 감독은 양준혁에게 "1군 선수들과 동행하며 타격 조언 등 팀 전력 향상을 위해 모든 기술을 후배들에게 전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한국, 캐나다에 4-5 석패 세계청소년야구 1승1패

한국 청소년 야구가 제24회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홈팀인 캐나다에 무릎을 꿇었다.

최재호(신일고) 감독이 이끄는 청소년 대표팀은 26일(한국시간) 캐나다 선더베이 포트아서스타디움에서 열린 B조 예선 2차전에서 접전 끝에 4-5로 졌다.

대회 3연패를 노리는 한국은 1승1패를 거둬 B조에서 쿠바(3승), 캐나다(2승1패)에 이어 3위로 밀렸다.

A, B조 각 6팀 가운데 4위까지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남은 3경기에서 1승만 추가해도 8강에 나갈 수 있다.

하지만 8강에서 미국, 대만 등 A조 강팀과 대결을 피하려면 조 1, 2위를 차지하는 게 유리하다. /연합뉴스

순천 효천고 결승행 좌절 화랑기아구 복일고에 2-11 패

순천 효천고의 화랑기 결승진출이 좌절됐다.

순천 효천고는 26일 부산 구덕 야구장에서 열린 제 62회 화랑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준결승에서 천안복일고에 2-11로 대패했다.

효천고 김민욱이 선발로 나섰다 무득기 우승팀 복일고의 타선을 막아내는 역부족이었다. 첫 타자 한덕고에게 중전 안타를 맞은 김민욱이 볼넷과 안타로 만루 위기를 맞았다. 김주현의 중전안타로 선취점을 내준 효천고는 1회에만 3실점 하는 등 복일고 막강 타선을 맞아 힘겨운 승부를 펼쳤다.

7회말 홍승현과 최중웅의 2루타 2개로 첫 득점을 올린 효천고는 8회말 상대의 잇단 실책으로 1점을 만회하는데 그치며 2-11로 고개를 숙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콘타도르 '투르 드 프랑스' 2연패 15구간부터 선두 유지...암스트롱 23위 그쳐

디펜딩 챔피언 알베르토 콘타도르(28·스페인)가 2010 투르 드 프랑스에서 개인 통산 세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콘타도르는 26일(한국시간) 20구간 경주에서 프랑스 퐁위로부터 파리 샹젤리제 거리까지 102.5km를 2시간24분21초에 달려 81위를 기록했으나 최종 시간 91시간58분48초로 2년 연속 '엘토 지'의 주인공이 됐다.

14구간까지 앤디 슐렉(룩셈부르크·25)에 31초 뒤지던 콘타도르는 15구간에서 역전한 뒤 박빙의 리더를 지켜오다 19구간 타임 트라이얼에서 격차를 벌렸다. /연합뉴스

지난해 콘타도르에 이어 2위에 올랐던 슐렉은 콘타도르에 39초 뒤지며 25세 이하 최우수 선수에게 주는 '화이트 지'에 만족해야 했다.

영국의 사이클 스타 마크 카벤디시(25)는 20구간에서 콘타도르를 비롯한 160명과 같은 시간을 기록했으나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마지막 구간 1위에 올랐다.

'사이클 영웅' 랜스 암스트롱(미국·39)은 최종 시간 92시간38분8초로 23위에 그쳤다. 암스트롱은 투르 드 프랑스에 더는 출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산행안내

7월 28일(수)
▲광주점선악회 '대문' 카일봉(하위사계곡) 7월28일(수) 7시30분 백운동굴다시(8:00) 구원공제회관, 8:10 문이리관후루, 8:20 동공주(10시) * 다음날: 광주점선악회 T.011-616-3490, 011-616-2548

7월 29일(목)
▲e-조은산악회 경복성주속(북쪽) 7월29일(목) 7시 30분 안주체육관 출발(7:10 문이리) 후, 7:20 배안(배우사계곡) * 다음날: c-조은산악회 T.010-891-0091

7월 31일(토)
▲광주메트로산악회 남덕유산(1,500m), 무봉산 위주에 이선화(하계) 7월31일(토) 7시 30분 안주체육관 출발(7:15 경주역, 7:30 배안(배우사계곡) * 다음날: 광주메트로산악회 T.010-402-3018, 010-632-0039

7월 28일(수)
▲빛고을도요산악회 남도의 도요산(전남) 7월28일(수) 7시 30분 안주체육관 출발(7:10 문이리) 후, 7:20 배안(배우사계곡) * 다음날: 빛고을도요산악회 T.010-616-3490, 011-616-2548

8월 1일(일)
▲광주점선악회 화도 산행, 약산(사리) 8월1일(일) 7시 30분 안주체육관 출발(7:10 문이리) 후, 7:20 배안(배우사계곡) * 다음날: 광주점선악회 T.010-616-3490, 011-616-2548

8월 3일(화)
▲정다운우리산악회 개산 산행(전남) 8월3일(화) 7시 30분 구례대교와 출발(사리) 후, 7:40 배안(배우사계곡) * 다음날: 정다운우리산악회 T.010-402-3018, 010-632-0039

8월 4일(수)
▲광주점선악회 개산 산행(전남) 8월4일(수) 7시 30분 안주체육관 출발(7:10 문이리) 후, 7:20 배안(배우사계곡) * 다음날: 광주점선악회 T.010-616-3490, 011-616-2548

8월 5일(목)
▲e-조은산악회 경복성주속(북쪽) 8월5일(목) 7시 30분 안주체육관 출발(7:10 문이리) 후, 7:20 배안(배우사계곡) * 다음날: e-조은산악회 T.010-891-0091

8월 7일(토)
▲광주점선악회 개산 산행(전남) 8월7일(토) 7시 30분 안주체육관 출발(7:10 문이리) 후, 7:20 배안(배우사계곡) * 다음날: 광주점선악회 T.010-616-3490, 011-616-2548

8월 8일(일)
▲신안산악회 개산 산행(전남) 8월8일(일) 7시 30분 안주체육관 출발(7:10 문이리) 후, 7:20 배안(배우사계곡) * 다음날: 신안산악회 T.010-402-3018, 010-632-0039

8월 11일(수)
▲광주점선악회 개산 산행(전남) 8월11일(수) 7시 30분 안주체육관 출발(7:10 문이리) 후, 7:20 배안(배우사계곡) * 다음날: 광주점선악회 T.010-616-3490, 011-616-2548

8월 12일(목)
▲e-조은산악회 경복성주속(북쪽) 8월12일(목) 7시 30분 안주체육관 출발(7:10 문이리) 후, 7:20 배안(배우사계곡) * 다음날: e-조은산악회 T.010-891-0091

8월 14일(토)
▲무등도요산악회 금원 개산 산행(전남) 8월14일(토) 7시 30분 안주체육관 출발(7:15 경주역) 후, 7:20 배안(배우사계곡) * 다음날: 무등도요산악회 T.011-616-3490, 011-616-2548

8월 15일(일)
▲광주점선악회 개산 산행(전남) 8월15일(일) 7시 30분 안주체육관 출발(7:10 문이리) 후, 7:20 배안(배우사계곡) * 다음날: 광주점선악회 T.010-616-3490, 011-616-2548

8월 18일(수)
▲광주점선악회 개산 산행(전남) 8월18일(수) 7시 30분 안주체육관 출발(7:10 문이리) 후, 7:20 배안(배우사계곡) * 다음날: 광주점선악회 T.010-616-3490, 011-616-2548

8월 19일(목)
▲e-조은산악회 개산 산행(전남) 8월19일(목) 7시 30분 안주체육관 출발(7:10 문이리) 후, 7:20 배안(배우사계곡) * 다음날: e-조은산악회 T.010-891-0091

8월 21일(토)
▲광주점선악회 개산 산행(전남) 8월21일(토) 7시 30분 안주체육관 출발(7:10 문이리) 후, 7:20 배안(배우사계곡) * 다음날: 광주점선악회 T.010-616-3490, 011-616-2548

8월 26일(목)
▲e-조은산악회 개산 산행(전남) 8월26일(목) 7시 30분 안주체육관 출발(7:10 문이리) 후, 7:20 배안(배우사계곡) * 다음날: e-조은산악회 T.010-891-0091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지도사 자격증 취득)

스피치, 연설, 리더십, 설득력 향상과정

- 교육목표:** 대중 및 상대에게 감명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 모집인원:** 50명 선착순 * 지원대상: 직장인, 일반인, 주부, 기업체 및 학생,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
- 강의요일 및 시간:** - 화요일(주요일) 19:00-21:00
- 교육기간:** 2010년 9월 10일(금) - 12월 24일(금) (15주) * 교육요령: 실습위주교육(실습 70%, 이론 30%)
- 교육과정:** 대학 및 연설기법, 발표력, 남 앞에서 두려움없이 말하기, 각종 행사 사회 진행 요령 및 연설문 낭독요령, 각종 원고 작성요령, 리더 및 지도자로서의 품위 향상 교육, 자정형 공직선거 출마 연설문 작성 및 지도
- 원서교부 및 등록기간:** -등록기간: 2010년 7월 28일(수) - 9월 2일(목) -등록시간: 월 - 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등록장소: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과 (호성신 4층)
- 등록방문수령료: 200,000원** -직접 방문수령 또는 전화신청 후 수강자 명의로 입금 -예금계좌: 광주은행 134-107-109843(예금주:광주대 평생교육원)
- 수료 후 혜택:** 수료증 수여(총장명인), 스피치지도사 자격증 수여, 각종선거연설문 피관, 각 기업체, 학원단체스피치, 발표력 강사 및 사회진행자 추천
- 담당교수: 한 상택** -한국유년연설인협회 회장 -제71대 대통령직수석비서관장 -한국정치연수원 교수 -대통령실 전국유년연설 및 전국스피치 기능경시대회 대회위원장 -기초광역의원, 광역초단체장, 국회의원후보 연설지도 및 연설문 작성(30년) -사단법인 한국유년연설인협회 광주본부 회장 *저서: '말하기 교본', 스피치 용법 연설 리더십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062) 670-2167, 2168
FAX: (062) 670-2475 HP: 010-5692-9998